

# 고부관계

- 고부사이의 불리한 조건에서 우승을 향해 가는 한 팀이다.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www.consult.or.kr

**고**부관계는 혈연의 연결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에 의해서 법적, 인위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한국가족에서 고부관계만큼 주목받는 인간관계도 드물며, 고부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견해나 이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주변에서 고부(姑婦)간이라는 말은 그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어렵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만큼 오해나 장벽을 안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경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불리한 조건에서 고부 두 사람이 우승을 향해 달려나 가야 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팀을 이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 상대방의 기질이나 생각,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시작부터 불리한 경기에서 우승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고부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 쪽에서, 노년기 성격특성이나 심리적 욕구변화 및 노화에 대한 지식 등의 습득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복잡한 마음의 이해와 이것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결혼과 출가는 부모의 심리적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에 자신의 모든 삶을 유지해왔던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

의 출가는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한국 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우선되어 오지 못한 만큼, 어머니에게서 아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따라서 장성한 아들의 결혼은 어머니로 하여금 상실감, 며느리에 대한 갈등과 함께 아들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 등의 복합적 감정을 유발한다. 특히 아들이 어머니에게 각별했던 경우라면, 아들의 결혼은 시어머니에게 더 갈등적이고 더 큰 긴장감을 갖게 한다.

김여사는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켰다. 김여사는 이렇다 할 취미나 일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편과는 그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한 아들을 보내고 김여사는 얼마 동안은 잘 했구나 하고 지내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언제나 자기 곁에서 어머니, 어머니하고 말을 걸어오던 아들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에서 구멍이 생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잘해 주는지 아닌지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여, 자주 전화를 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아들이 어머니인 자신보다 며느리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 불쾌하고 섭섭함이 커져 갔다. 어쩌다 며느리 혼자 시가에 먼저 오면, 반갑게 전화를 맞는 어머니 젓혀두고 안사람만 바꿔달라고 하는 아들의 태도가 섭섭하고, 마냥 행복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미워졌다. 김여사는 며느리의 사소한 행동에도 꼬투리가 잡아가기 시작했으며 며느리의 친정습관이나 자기 집에 대

한 태도를 비난하게 되면서 급기야는 며느리와 소원한 관계로 남게되었다.

이처럼 결혼한 아들부부와와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인 면도 있지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면에 깊은 갈등과 긴장이 수반되기도 한다. 중년의 부모가 아들내외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아들부부를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역할과 권위까지도 확실히 포기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김여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내외의 모든 행동은 매우 섭섭할 수 있다. 내가 지내온 삶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때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수고와 장점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고부화합이나 아들내외로부터의 인정은 아들내외 또는 며느리의 입장을 세워주는 시어머니의 성숙한 배려가 있을 때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고부사이에는 한여름 날에 여우벌과 소나기처럼 교차되는 감정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잔물결과 같다. 가볍게 한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에게 앞 가장자리가 뽀족뽀족하게 돋은 화초와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독립과 결혼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에게로 향하던 에너지 자원을 자신의 부부관계나 취미생활과 같은 새로운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알고도 모르는 채 무심히 넘어가는 지혜로 자녀와 독립된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들, 딸 1남 1녀를 둔 결혼 6년차 30대 중반의 남성 민○○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얘기를 꺼냈다. “아내와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술·담배 좋아하고, 돈 아껴 쓸 줄 모르고, 아내랑 대화도 별로 없고... 저 자신도 아내에게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이드신 어머니하고 자꾸 충돌하는 아내를 보면 화가 납니다. 대화로 풀자고 하면 그만두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내가 점점 칼같이 냉정한 성격이 되어가니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당사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낀 아들이자 남편에게도 큰 심적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의 경우 민씨는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불편할 때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 버렸다. 민씨가 어머니와 아내 앞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내의 편이 되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내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함께 의논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했다면 민씨의 지적처럼 아내가 칼같이 냉정한 성격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누적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나를 이해해주는 신뢰와 애정으로 결합된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아내에게 보인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잘 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은 부부관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PPKK